

안산 지역 내 사회적 고독감 및 정서적 단절로 인한 소외 여성 독거 어르신의 유사 가족 이웃 맺기 프로젝트

“할미다방”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슬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본오1동은 독거 어르신이 밀집 거주 중인 지역이다. 어르신들은 빈 몸으로 집을 나와 홀로 살기 위해 이곳저곳 방황하다 안산에서 가장 낙후되고 집값이 싼 이곳에서 남은 노년 생활을 보내고자 자리를 잡았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모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어르신 역시 과거 수집과 고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본오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다.

특히 여성 독거 어르신은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사는 데 익숙해져 이웃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들의 관계 철회 내지 축소는 우울증을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쇠약해진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강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이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어르신들은 며칠간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이는 주위에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 없거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여성 독거 어르신에게는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마땅치 않고, 기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지원 체계가 전부이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의 사회적 지지망 체계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본 복지관에서는 현재 어르신의 정서 상태를 감안할 때 일방적인 도움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지역의 여성 독거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사회적 박탈감 해소)하고, “행복에 대한 기억”을 찾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독감을 해소하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조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이다. 본 복지관은 2001년부터 일관되게 지향하고 꿈꿔온 가치관인 ‘열린 가족, 머물고 싶은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를 함께 실현할 기회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우리 마을에 거주하며 정서적 단절을 느끼는 소외 계층 독거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조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 ‘베짱이’, ‘이웃’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여성 독거 어르신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 내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지역 내 여성 독거 어르신 프로그램을 자조적으로 운영하여 고독감 및 심리적 박탈감을 해소한다.

하위 목표 1. 참여자 간 관계 강화 집단 프로그램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2. 나의 어린 시절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3. 지역 내 독거 여성 어르신 밥상 나눔 진행(연 2회)

하위 목표 4. 강점 관점을 통한 인터뷰 강점 찾기 프로그램 실시(연 1회)

목표 2. 여성 독거 어르신의 동질감을 기반으로 ‘베짱이’, ‘관계’,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한다.

하위 목표 1. 지역 내 독거 여성 어르신의 지역 사회 연계 활동(연 1회)

하위 목표 2. 지역 주민 대상의 나눔 활동 진행(연 2회)

하위 목표 3. 연합 문화 활동 “집 나간 할미”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4. 독거 어르신 100명 대상 협동 활동 진행(연 1회)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구분	· 지역 내 65세 이상 여성 독거 어르신 - 사회적 지지망 및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된 여성 독거 어르신 -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는 여성 독거 어르신 -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을 느끼는 여성 독거 어르신 - 무료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밀반찬 지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수강 어르신, 지역 내 소외 계층 어르신
주된 참여자	본 프로그램에 욕구가 있는 여성 독거 어르신 8명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독거, 기초 생활 수급자 여성 어르신 ·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고독감을 느끼는 여성 어르신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여성 독거 어르신 추천 -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진행, 욕구 반영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관계 강화 프로그램	첫 만남	4/21	1회	· 자기 소개 진행 : 별칭 정하기 · 모임 규칙 정하기 · 주제 토크 진행 : 주제 카드를 통한 이야기 나눔(나의 어렸을 적, 가장 외로웠던 날,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기억, 고마운 사람, 나의 가족 등 이야기 나눔)	
	강점 인터뷰	4/21	1회	개별 인터뷰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잘하는 요리, 좋아하는 활동이나 놀이,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고 싶은 곳, 지금의 마음 상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듣고 싶은 말 등, 강점 관점으로 긍정적 질문을 통한 인터뷰 진행	
	밥상 나눔 "밥풀꽃"	5/4	2회	· 어렸을 적 먹었던 반찬으로 1인 1가지 반찬 도시락 싸오기 · 반찬 나누기 · 함께 먹을 밥상 차리기	· 1인 1가지씩 준비한 반찬을 접시에 담아 밥상 차리기 · 어렸을 적 먹었던 반찬을 함께 나눠 먹기 · 어린 시절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함께 공감하고 나누기 · 저녁 식사를 위해 서로 남은 반찬 나누기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6/28	2회	· 밥상 수다 진행 · 다양한 주제로 동질감을 기반으로 서로 공감하기	건강 관리,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나의 저녁 일상, 기억에 남는 장소, 적적할 때, 내 마음이 편할 때 등의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속내를 끌어내어 서로 위로와 주고 나 혼자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함.
	할미 생신 파티	9/9	1회	· 각자 손수 쓴 카드 메시지와 선물 준비 · 1인 1가지씩 준비한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 깜짝 생일 파티 진행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할미 아메리카노	8/19	1회	· 바리스타 체험 · 라테 아트 체험	지역 사회(카페)와 연계, 일일 카페 바리스타 체험 진행
	"할미다방" 커피 나눔	11/4	1회	지역 주민 대상 커피 나눔	참여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커피 나눔 진행
	할미콘 아이스크림 나눔	6/29	1회	복지관 내 아동 대상 아이스크림 나눔	복지관 내 어르신과 아동 세대 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나눔 활동 진행
	집 나간 할미 "서울 구경"	10/20	1회	주제 토크를 통해 참여자가 가고 싶은 곳 가기	· 서울 주요 장소 투어 · 통인시장 엽전 도시락 체험, 광장시장, 청계천 등
	송년 모임	12/5	1회	· 1년 동안의 활동 소감 · 2017년도 계획 나눔	·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1년 동안의 활동을 사진으로 돌아보며 소감을 나눔. · 2017년도 활동 방향과 계획 나눔.
	산타 할미	12/23	1회	경로 식당 이용자 100명, 재가 어르신 27명,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 18명 대상 선물 나눔 진행	· 산타로 변장하여 성탄절 선물 나눔 진행 · 복지관 내 어르신 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1년 동안의 마무리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함.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관계 강화 프로그램	첫 만남 + 강점 인터뷰	4/21	1회	1회	· 처음 만난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첫 모임에서 어색하거나 약간의 불편함을 보임. · 자기 소개를 하고 별칭과 모임의 규칙을 정하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함. - 모임에 빠지지 않기, 하루 전날 모임 시간을 짝꿍에게 알려주기, 물컵 챙겨오기, 별칭 부르기 등 참여자가 정한 규칙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함. - "할미다방" 모임 시작을 알리고, 참여자들이 활동에 대해 기대하게 됨.
	밥상 나눔 "밥풀꽃"	5/4	2회	2회	· 1인 1가지의 반찬 도시락을 챙겨서 함께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진행함. - 과거 무료 경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급히 마치고 돌아가거나, 파지를 줬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던 참여자들에게 밥상 모임은 하루 중 유일하게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음. 식사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함. - 늘 점심 밥상을 받기만 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해운 반찬과 밥으로 밥상을 차리고 나눠 먹으며 지난 사연과 어려움(7년, 고립, 이별 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함. - 밥을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닌, 밥상을 통해 그때 그 시절 먹었던 반찬을 회상하고 여럿이 마주보고 먹는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고 말벗이 된 참여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게 됨.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6/28	2회	2회	· 다양한 주제 카드를 놓고 참여자가 하나씩 카드를 뽑으며 이야기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을 다시 인식하고 지금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음. - 강점 관점 질문(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참여자들이 웃게 만드는 것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등)을 통해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끌어내어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하고 정서적 도움을 줌. - 평소 이야기 상대가 없었던 참여자들은 주제 토크에서 말 못할 어려운 이야기도 꺼내며 서로 함께 슬퍼하고, 좋은 일에는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 - 살아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생활 정보(지인이 병원에 동행할 때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가기로 약속함, 아침 스트레칭 방법, 진료비 할인 정보 등)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음.
	할미 생신 파티	9/9	1회	1회	· 사업 계획상의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어르신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일을 챙기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모임 활동의 일부로 진행하게 됨. - 평소 홀로 생일을 맞이했던 참여자들은 서로 생일 날짜를 공유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기로 정함. - 각자 생일상 차림을 위해 반찬과 다과를 챙기고 케이크, 선물, 음악, 편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생일을 쓸쓸히 보내지 않게 배려함.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를 챙기는 과정에서 라포가 형성됨.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할미 아메리카老	8/19	1회	1회	· 여성 독거 어르신들과 협력해 예술·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유명 카페 레스토랑을 지역 사회 내에서 발굴, 여성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과 라테 아트 교육을 진행함. - 청년들이 1:1로 바리스타 교육과 라테 아트 등을 어르신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게 진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은 다소 생소했지만 너무 재미있었다며 직접 서빙과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함. - "내 평생 이런 곳은 처음이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제 얼굴도 익혔으니 인사하고 지내고 싶다" 등 만족감을 드러냄. - 바리스타 체험 및 문화 활동에는 8명 참여함.
	"할미다방" 나눔 활동	11/4, 6/29	1회	2회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독거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즐거운 나눔 활동을 진행함. - 커피, 아이스크림, 핫도그 등 "할미다방" 모임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주민들도 동네 어르신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됨. - 나눔 활동을 통해 여성 독거 어르신들과 이웃의 거리를 좁히고, 이웃들이 어르신께 친근하게 다가갈 계기를 마련함 - 주민 총 280명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 2회 진행
	집 나간 할미 "서울 구경"	10/20	1회	1회	·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단절로 외출 기회가 없는 독거 어르신께 그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 - 평소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주제 토크를 통해서 그들이 장소와 일정을 참여자들 스스로 계획함. - 흔한 서울 구경이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하루였음. 혹시나 길을 잃을까 서로를 챙기고, 단체 활동임을 인식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그들이 활동 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증진과 정서적 지지가 강화됨. - 참여자들 모두 그들이 활동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보임.
	송년 모임	12/5	1회	1회	· 1년 동안의 모임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함. - 사진을 통해 당시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시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소감을 나눔. - 참여자들은 물질적 이득이나 눈에 보이는 지속적인 서비스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을 의미 있게 여겼음. - 활동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참여자들의 변화와 만족감을 평가함(설문지, 사전·사후 척도). - 내년에도 모두가 모임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함. 모임 활동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정서적 지지를 얻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산타 할미	12/23	1회	1회	·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지관에서 함께 만나왔던 어르신 150명께 연말 인사와 선물 나눔을 진행함. - 산타로 변장한 "할미다방" 참여자들이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자"는 인사와 선물 나눔을 함으로써, 상호 교류가 없던 독거 어르신들이 이웃 간의 정과 관계를 생각해보게 만들. - 무료 급식을 받는 독거 노인이 아닌, 모두가 이웃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전하려는 노력을 실천함.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내 여성 독거 어르신 및 소외 계층 어르신의 심리적 고독감 및 사회적 박탈감 해소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사전·사후 검사	척도 검사지	· 프로그램 진행 1일차 사전 검사 ·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만족도 설문지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시

평가 결과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사전·사후 검사
- 평균 54.7점에서 60.3점으로 향상됨(5.6점 향상).
- 사후 검사 시에는 사전 검사와 달리 척도 문항(#1. 내 삶 속에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3.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할 공통 화제가 없다)에서 7명 모두 긍정적 답변을 함.
- 참여자들은 평균 연령 89.4세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참여자들과 관계를 다졌고, 주변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을 발견함.
·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 식사와 대화를 중심으로 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일상, 앞으로의 계획, 꿈,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끌어내면서 참여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 위안을 얻음.
- 혼자 있기 적적해 모임 활동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항상 힘을 얻고 간다고 이야기함. 참여자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모임 활동하면서 친구도 생기고 다 이웃이 된 것 같아 좋다고 이야기함.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여성 독거 어르신의 남은 노년 생활에 있어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 보호 체계 확대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척도 검사지	· 프로그램 진행 1일차 사전 검사 ·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
	사회적 지지 척도 사전·사후 검사	만족도 설문지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시
	프로그램 만족도	· 인터뷰 질문지 · 설문지	

평가 결과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 사전 검사 22점에서 28점으로 5점 향상됨.
- 척도 문항(#1.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2.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에서 7명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함(사전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검사 결과 참여자들은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어르신들 간의 관계 형성으로 일상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임.
· 사회적 지지 척도
- 사회적 지지 척도, 지지에 대한 자각 48.4점에서 51.4점으로 평균 3점 향상됨.
- 참여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3명으로,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답한 사람은 2명이었고, 그 외에는 종교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동사무소 직원, 자녀, 경찰 등 전문 요원이 대부분이었음. "할미다방" 모임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서로를 주변 자원으로 인식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됨.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만족도
- 월 1회 만남을 아쉬워하며 월 2회로 만남 횟수를 늘리고 싶은 욕구를 보임. 참여자들이 "할미다방" 모임으로 삶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상호 라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모임 날이면 참여자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만나면 마냥 즐겁고 재미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하며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눔.
- 참여자는 모두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독거 여성 어르신으로 복지관 내 경로 식당을 이용했음. 과거에는 참여자 간의 교류나 상호 작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할미다방” 프로그램이 독거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감 해소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내러티브 접근	사전·사후 검사	면접, 관찰

평가 결과

- 집단 면담과 관찰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같이”, “함께”, “어울려”, “고마움”, “편안함”, “대화”, “이야기”, “친구” 등이었음. 참여자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대화를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여성 고유의 특성을 독거 여성 어르신들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관계를 맺어주는 중심점이자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함.

연구 질문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참여 어르신에게 본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가?	내러티브 접근	사전·사후 검사	면접, 관찰

평가 결과

-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할미다방”을 “홀로 사는 내가 위험하고 외로울까 봐 도와주는 곳”으로 인식함. 이후 참여자들은 “친구들이 있는 곳” “나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각자가 “할미다방” 프로그램에 대해 달라진 느낌을 이야기함.
- 참여자의 잠재적 역량이나 강점 인식 정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후 차이가 있었음.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검사 시 사전은 평균 61점, 사후 65.4점으로 4.4점 향상됨.
- 참여자들이 홀로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을 발견하도록 돕고, 개개인의 강점을 발굴하여 라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할미다방”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 이웃과 만날 계기를 마련하고 독거 노인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임을 알리는 기회가 됨.

IV. 사업 성과

1. 독거 어르신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지지망 확장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협동하는 경험이 거의 없고 무료 경로 식당, 집, 종교 시설을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이제 복지관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으로 서로를 챙기고 다독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줄 말벗도 생겼다.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할미다방” 모임을 거듭하면서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소외된 독거 어르신이 아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란 인식 확대

본오1동의 독거 어르신은 스스로를 나약하고 소외된 존재, 희망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겨 왔다. “할미다방”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 자기 인식에 빠진 어르신의 내적 강점을 끌어내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접 차린 밥상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었고,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사회 내 독거 어르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자 간의 관계 증진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V. 향후 계획

2016년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모임의 정체성을 참여자 안에서 드러내고, 모임에서 참여자가 받는 도움은 무엇이며, 왜 모임에 참여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알아가는 해였다.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소통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관계의 역동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독거 어르신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자 공경의 대상인 이웃 어르신임을 지역 사회 내에서 인식하게 하고, 주변 이웃들이 이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필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2017년 활동은 여성 독거 어르신들이 올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후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끔 지원하고자 한다.